



클로드 베르나르의 실험 의학 : 19세기 프랑스 문학에 나타난 자연주의와 근대성의 기원 연구

이찬규* · 이나미**

1. 서론
2. 실험의학의 형성과 베르나르의 근대성
3. 『실험의학연구서설』과 자연주의
4. 베르나르에 대한 생태학적 비판과 현재적 의미
5. 결론

1. 서론

1) 연구의 목적

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Emile Zola)는 1880년에 간행한 『실험소설』(*Le roman expérimental*)에서 자연주의 문학의 방향과 이론을 피력했다. 그런데 졸라는 그 도입부에서 새로운 문학적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이론적 시작이 의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다. 그 중에서도 졸라는 클로드 베르나르(Claude Bernard)가 집필해서 1865년에 간행한 『실험의학연구서설』(*L'introduction à l'étude de la médecine expérimentale*)을 적시한다. 졸라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 RF연구교수

주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인문학연구원, 110-745

전화: 02-760-1279/ 이메일: balcon15@hanmail.net

** 교신저자: 이나미 / 심리분석 연구원 / 서울대 의대 겸임교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 4동 1699-3 신한국빌딩 702, 137-883

전화: 02-597-6100/ 이메일: nami6107@naver.com

© 대한의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는 『실험소설』의 첫 장부터 “문학이 과학에 영향을 받아 전개될 수도 있다는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것이다”(Zola, 2006: 59)라고 말하면서 클로드 베르나르의 저작을 자연주의 문학이 본받아야 할 결정적인 모델로 제시한다. 그리고 근대문학의 한 방식으로 자연주의를 피력한 자신의 주장이 『실험의학연구서설』을 편집하거나 응용한 것이며, 자신이 한 일은 다만 그의 글 속에서 ‘의사’라는 용어를 ‘소설가’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다.

나는 온갖 쟁점들에 있어서 클로드 베르나르를 나의 방패로 삼을 것이다. 요컨대 내 글은 그의 주장의 편집에 지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내 생각을 분명히 하고 또 거기에 엄격한 과학적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는 ‘의사’라는 낱말을 ‘소설가’로 대체했을 뿐이다(Zola, 2006: 59).

에밀 졸라가 선언한 문학과 의학의 만남은 의학자 베르나르의 근대적 사유가 당대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된다. 19세기 부르봉 왕가의 절대주의 통치를 받던 프랑스는 유럽 근대 문화의 중심지였다. 대도시의 팽창, 수도 파리에서 수월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토론하는 대중, 지식인 집단, 카페와 살롱의 탄생 등이 근대 문화의 외면적 풍경이라면,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혼재는 19세기 유럽의 근대 문화를 대표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Favre, 1990: 180-181).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졸라를 중심으로 탄생한 자연주의는 사실주의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진보적 사조였다. 본 연구는 의학자 베르나르의 사상과 유럽의 19세기 근대 문화를 표방하는 자연주의 문학과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대다수의 의학사(醫學史) 혹은 문예사조사(文藝思潮史)에서 간략하게 명기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 즉 베르나르가 졸라에게 영향을 미쳤고 졸라는 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와 그 파생적 의미들을 단계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클로드 베르나르 저작들에 대한 선행 연구

클로드 베르나르는 실험의학 혹은 실험생리학의 주창자로 알려진 만큼 그에 따른 연구는 다수이다. 베르나르의 고국인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각지와 미국 등지에서 연구 사례는 꾸준히 이어진다. 2013년 프랑스 Toulouse 제2대학교 도서관장 Marcel Marty가 제시한 의과대학 도서관대출 현황지표를 참조하면, Robert Clarke의 *Claude Bernard*(Paris: Seghers, 1961)는 베르나르에 관련된 참고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개인적 일화와 유년 시절까지 상세하게 다루며 베르나르의 저작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발췌하여 소개한다. 『클로드 베르나르의 실험적 추론과 독극물 연구』(*Raisonnement expérimental et recherches toxicologiques chez Claude Bernard*)(Genève: Droz, 1973)는 베르나르 관련 전문 역사학자 Mirko D. Grmek가 학술지에 발표했던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특히 생리학 영역에서 동물계와 식물계의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베르나르의 주장과 관련된 의학사적 경로를 구체적으로 고증하고 있다. Frederic L. Holmes의 『클로드 베르나르와 동물 화학』(*Claude Bernard and Animal Chemistr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은 베르나르의 과학적 활동과 성과들을 일목요연하게 다루면서 당시에는 그의 사유가 얼마나 혁명적인 사고였는지 밝혀준다.

베르나르의 사유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럽의 근대 문화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제대로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연구서는 『클로드 베르나르 연구의 필요성』(*La nécessité de Claude Bernard*)(2001)이다. 이것은 베르나르의 고향 지역(Saint-Julien-en-Beaujolais)에 위치한 ‘클로드 베르나르 박물관(Musée Claude Bernard)’에서 삼일동안 열린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들을 보완하여 간행한 연구서이다. 학술대회동안 총 34개의 연구주제들이 생리학, 의학, 과학사, 철학, 정치 사회학 등을 전공한 전문 연구가 및 교수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의장격인 랑브리크(Louise L. Lambrichs)는 발문에서 베르나르의 사상이 생리학과 의학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분과학문에 영향을 미쳤고, 바로

그 점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중요한 의의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베르나르 사상의 과급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학술대회에서 결락되어 있는 베르나르의 과학사상과 문학과와의 관계사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랑브리크는 완곡하게 언급한다(Lambrichs, 2001: IV-VII). 하지만 2001년에 간행된 *La nécessité de Claude Bernard* 이후 현재까지 문학과와의 관계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문헌은 발견하기 어렵다.¹⁾

3) 본 연구의 의의

에밀 졸라가 클로드 베르나르의 저작을 바탕으로 자연주의라는 문예사조를 전개하고 이론화했다는 사실은 의학사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문학과 의학’이라는 융합적 패러다임을 크게 ‘문학 속의 의학(medicine in literature)’과 ‘의학 속의 문학(literature in medicine)’으로 구분해 본다면(김옥주, 2001: 462), 베르나르의 경우는 ‘근대문학 이론의 기원이 된 의학’으로서 문학 속의 의학이나 의학 속의 문학이라는 구별을 뛰어 넘기 때문이다. 김옥주는 ‘의학 속의 문학’을 “임상의학과 의학교육에서 문학 작품, 문학 활동, 또는 문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김옥주, 2001: 462)²⁾이라고 했는데 베르나르의 『실험의

1) 에밀 졸라에 대한 관련 연구서들은 베르나르에 비해 한층 방대하다. 그런데 유기환은 “외국 문학의 한국 수용에 있어 에밀 졸라만큼 그 문학적 성과나 명성에 비해 소개와 연구가 미미한 작가도 드물 것”이라고 토로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기환, 『에밀 졸라』(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6쪽. 본 연구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선행 연구는 국내에서 출간된 정명환의 『졸라와 자연주의』(서울: 민음사, 1982)다. 이 책을 통해 “실험 의학의 변증법적 사유”라는 주제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간된 Basilio의 『기계와 생명 : 졸라의 수사학적 환유』(*Le mécanique et le vivant - la métonymie chez Zola*)(Genève: Droz, 1993)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관계사를 일정 부분 개괄하고 있다. Benjamin의 논문 「문학의 옹호로서의 실험 : 졸라의 실험소설」(“Experimentation as a Defence of Literature: Zola’s *Le Roman Expérimental*”, *Australian Journal of French Studies* 45, 2009)은 졸라의 『실험 소설』에 관련된 연구경향을 일부 제시한다. 그리고 베르나르가 근대 문학 이론의 기원이 된다는 논리를 실제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논의하기 위해 졸라의 『실험 소설』(*Le roman expérimental*)뿐만 아니라 『테레즈 라캥』(*Thérèse Raquin*), 『쟁탈전』(*La Curée*)등을 참조할 것이다.

2) 김옥주는 헌터의 주장(Hunter KM, “Toward the cultural interpretaion of medicine” in *Lit Med*)을 토대로 ‘문학 속의 의학’은 “문학 이론과 방법론으로 의료 및 의학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의학 속의 문학’과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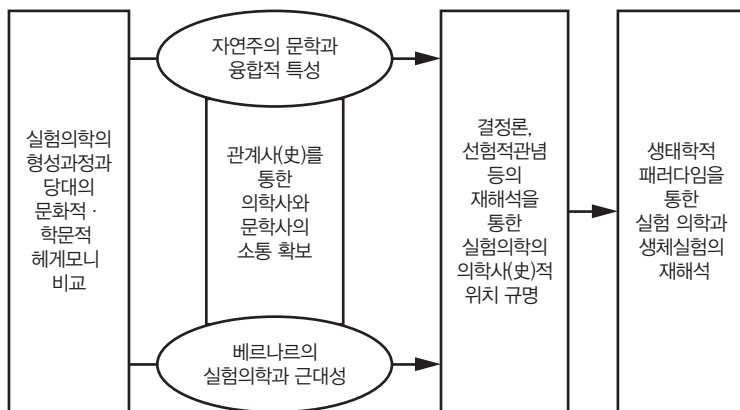
학연구서설』에 대한 본 연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학이 문학이라는 패러다임에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새로운 의학사적 방법론에 천착할 것이다.

본 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융합적 패러다임과 의학사적 취지를 바탕으로 베르나르의 ‘실험의학’ 속에 담겨있는 근대성과 유럽 자연주의 문학의 기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따라서 베르나르에 대한 전기(傳記)적 접근과 더불어 실험 의학의 근대적 사유를 당대의 문화적·학문적 체계모니와 비교할 것이다. 둘째, 에밀 졸라가 어떤 맥락에서 의학자 베르나르의 사상을 자연주의 문학의 기원으로 간주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또한 실험의학의 주요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론’과 ‘선형적 관념’ 등을 다루면서 자연주의 문학을 “비관주의적이며 유물론적인 결정론”으로 생각하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셋째, 실험의학이 자연의 도구화를 일삼았던 근대 과학 문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생겨나온 생태학적 비판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그러한 고찰과정을 통해 베르나르의 저작 속에 다양하게 드러나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해체(解體)적 담론들을 분석할 것이다. 생체 실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를 도구화하는 실험은 결국 포기해야 한다는 베르나르의 윤리가 어떻게 심층적 생태주의(Deep ecology)와 연결될 수 있는지도 연구 대상이다.³⁾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 연구의 단계적 목표들을 도표로 제시한다.

부분이다.

- 3) 베르나르의 생명윤리 의식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개괄하고 있는 서지는 Joseph Schiller, 『클로드 베르나르와 당대의 과학적 문제들』(*Claude Bernard et les problèmes scientifiques de son temps*)(Paris: Cedre, 1967)와 Pierre Debray-Ritzen의 『클로드 베르나르 혹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새로운 입장』(*Claude Bernard : ou un nouvel état de l'humaine raison*)(Paris: Albin Michel, 1992)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림 1. 본 연구의 단계적 목표



2. 실험의학의 형성과 베르나르의 근대성

실험이라는 방법론은 19세기에 이르러 서양 의학과 생리학이 근대 과학의 길로 진입하는 바탕이 된다. 그 기초를 다진 이들로는 헬름홀츠(Helmholtz), 비샤(Bichat), 마장디(Magendie) 등 선구적 생리학자들을 꼽을 수 있다.⁴⁾ 베르나르는 1839년 파리 대학 의학부(Faculté de Médecine)⁵⁾를 졸업하고 오텔-디유(Hôtel-Dieu) 병원에서 마장디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인연은 베르나르가 근대 의학을 발전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 베르나르는 그곳에서 마장디의 조수로 근무하면서 추측과 가정이 아니라 관찰과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사

4) 생리학자들로부터 촉발된 실험적 방법론의 형성과 과정에 대해서는 Jean Fauvet의 『의학의 역사』(*Histoire de la médecine*)(Paris: PUF, 1957), pp. 93-105; John E. Lesch의 『프랑스 과학과 의학: 실험생리학의 출현』(*Science and Medicine in France: The Emergence of Experimental Physiology 1790-1855*)(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을 참조할 것.

5) 의학부의 학적부 기록에 따르면 베르나르는 대학 생활동안 “매우 평범한” 학생이었으며, 학업에는 “약간 게을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Robert Clarke, *Claude Bernard*(Paris: Seghers, 1961), pp. 11-12. 이러한 의학에 대한 청년기의 부적응은 그가 꿈꾸었던 장래 희망이 극작가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들을 기초로 환자를 진단하는 방식을 전수받는다. 벨-마장디 법칙(La loi de Belle-Magendie)은 척수의 전근 절단이 운동 마비를 일으키고 척수의 후근 절단은 감각 마비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시도다(Mazliak, 2012: 119-125).⁶⁾ 따라서 베르나르는 실험의학에 있어서 최초의 선구자적 인물은 아니다.⁷⁾ 하지만 에밀 졸라가 『실험 소설』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실험 의학의 사상적·윤리적 바탕을 체계적으로 다진 인물은 베르나르이다(Zola, 2006: 82-84). 졸라는 베르나르적 정신이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근본적 힘”을 불러일으킨다고 역설한다. 그것은 결국 “사실의 분석을 통해 사실의 주인이 되는” 과학적 태도로 이어지며 이는 곧 자연주의 문학의 강령이 된다(Zola, 2006: 56).

베르나르가 학생으로 있을 당시 파리 대학 의학부에서는 여전히 생기론(Vitalisme)에 입각한 학문적 패러다임이 주류였다(Dachez, 2012: 234-235). 생명은 인과론으로 설명될 수 없고, 생명력 또한 어떤 체계로 환원될 수 없는 신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기론자들은 본다. 그런데 베르나르는 오텔-디유 병원에서 인간의 몸과 질병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험들을 통해, 생기론의 사변적 차원을 넘어 현실적 차원에 천착하게 된다. 당시에 낭만주의 작가들이 현실세계에 실의를 느끼고 인간 문명 전체에 대한 반항으로까지 치달았던 반면에 사회 현실과의 구체적 접촉을 모색하고자 했던 사실주의 작가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한 시대적 맥락을 이 시점에서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사실주의가 자연주의 문학의 전신이기 때문이다.

베르나르는 생기론이 “결코 인식될 수 없는 미지의 원인들(생기적 원리,

6) 벨-마장디 법칙은 마장디 자신이 1821년 창간하여 19세기 유럽의 근대 의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잡지 『실험생리학』(*La physiologie expérimentale*)을 통해 발표되었다.

7) 19세기의 헬름홀츠와 같은 베를린 학파와 프랑스의 마장디 등을 실험의학의 창시자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나, 실험의학이 전적으로 당대에 생겨나온 근대의 전유물로 볼 수는 없다. 이를테면 고대 로마의 갈레노스(Galenos)는 2세기경부터 동물의 생체 실험을 통해 인체 연구를 했다. 17세기의 하비(Harvey), 18세기의 헌터(Hunter) 등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장디는 실험기법을 인체 각 부분의 기능을 알기 위한 의학 연구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주장하였고 베르나르에 이르러 체계화된다.

생리적 영혼 혹은 아르케)에 의해 좌우”(Bernard, 1965: 4)된다고 언명한다. 따라서 생기론은 임상의학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베르나르의 생각은 인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인체 보다 상위 원리, 이를테면 영혼이나 초자연적 힘의 지배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데카르트(Descartes)의 몸에 대한 사유와도 연결된다. 데카르트는 인체를 크고 작은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시계와 비유하면서 “인체는 독립된 고유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는 명제를 자신의 『방법서설』에서 이끌어내 ‘의학적 기계론(iatro-mécanisme)’을 전개한다(Py, 2002: 136-137).⁸⁾ 경험주의에서 비롯된 권위적 판단을 타파하기 위해서 충분히 증명된 사실만을 신용해야 한다는 데카르트의 이론은 베르나르의 『실험의학연구서설』에서 원용된다. 베르나르는 이를 바탕으로 물질과학의 환원주의적 측면을 비판하는 생기론을 형이상학적으로 교조화된 이론이라고 여기고 생명체의 현상과 그 기능을 실험적으로 밝혀내는데 전력한다. 이러한 베르나르의 노정은 당시의 문화적 헤게모니였던 낭만주의가 새로운 근대적 사유를 이끌어 내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았던 새로운 지적(知的) 사유의 출현과 맞물린다. 감성과 신비적 낭만주의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은 곧 과학적인 인식에 대한 신념으로 이어진다. 바로 과학과 문학 그리고 의학과 문학이 비슷한 인식체계를 갖게 되는 시점이다. 토렐 카이

8) 데카르트의 이러한 사유를 일반적으로 기계론적 자연관(la vue mécanique de la nature)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관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다소 비난 섞인 맥락 속에서” 혹은 “진지한 이해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성급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강신익 · 신동원 · 여인석 · 황상익, 『의학 오디세이』(서울: 역사비평사, 2007), 75쪽. 인간을 단순하게 기계적 기능으로 환원시킨다는 기계론에 대한 비판적 주제는 아마도 유기체적 자연관, 즉 생기론에 입각한 진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희진의 주장에 의하면 생기론 또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성급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생기론이란 용어는 생명과학적 낭만주의나 신비주의를 지칭하고,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된다. 그 이유는 이미 실증과학에서 퇴출된 ‘생명’ 개념을 동원해 물리 · 화학과 구별되는 생명과학의 독자적인 탐구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려 했기 때문이다. 생기론은 이렇게 함으로써 기계론과 물리화학적 환원주의의 야망에 대해 생명과학의 학문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복고적 태도였다는 것이다.” 한희진, 「폴-조제프 바르테즈(1734-1806)의 생기론」, 『의사학』19-1, 2010, 158쪽.

오토Thorel-Cailleteau에 따르면 유럽에서 문학과 과학이 융화하는 “신자연과학 시대”는 1855년에서 1865년 사이에 그 정점을 이룬다(Thorel-Cailleteau, 1998: 101-104).

생기론자들은 생명을 일체의 결정론에서 해방되어 임의적으로 작용하는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생명 현상을 일정한 유기적·물리화학적 조건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유물론자라는 명칭을 붙인다. 이것은 일단 정신 속에 자리 잡으면 근절시키기 매우 어려운 허위 관념이다. 오직 과학의 발전만이 이 허위 관념을 소멸 시킬 수 있을 것이다 (Bernard, 1966: 57).

자연주의에서 ‘자연’이라는 용어는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보는 낭만적 이원주의를 지양하는 개념을 지닌다. 자연주의는 육체 속에서 초월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계몽주의적 유물론을 계승하고 있으며, 자연의 법칙으로 인간과 그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베르나르의 실험정신에 입각한다. 베르나르는 1855년부터 마장디의 후계자로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했던 내용을 시리즈 형식의 저술로 남긴다. 『실험의학연구서설』보다 약 10년 전에 집필된 『의학에 적용된 실험생리학 강의』(*Leçons de physiologie expérimentale appliquée à la médecine*)(1856), 『유기체 체액의 생리학적 성질과 병리학적 변성에 대한 강의』(*Leçons sur les propriétés physiologiques et les altérations pathologiques des liquides de l'organismes*)(1859)에는 근대 의학뿐만 아니라 19세기 자연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는 베르나르의 실험적 행로가 뚜렷하게 표명되고 있다. 일테면 그는 “병자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경험 본위의 의사”에 대한 위험성을 역설하면서 관찰 → 가설 → 실험 → 검증으로 이어지는 실험의학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Bernard, 1966: 40). 그리고 이러한 실험의학의 방법론은 “과학적 관찰과 가설에 따른 소설 시나리오의 구조화”라는 자연주의 문학의 방법론으로 전수된다. 이는 곧 미지의 영역이

알 수 있는 영역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보는 낭만주의 작가들에 대한 비판적 근거가 된다.

베르나르는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가 되기 전에 실험생리학 분야를 위해 제정된 몽티용 상(Prix Montyon)을 네 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수상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론은 버리고, 사실은 받아들이는(Accepter le fait, abandonner la théorie)” 그의 실험 정신은 생명 현상을 물질론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는 생리학 연구에서 시작된다. 초기 생리학이 생명체의 형태를 관찰하고 그것을 기재(記載)하는 박물학적(博物學的) 내용에 치우쳐 있었다면, 베르나르적인 실험 정신은 생물체의 기능 혹은 현상을 분석하려는 총체적 시도였다는 점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의학사에 있어서 한층 더 의미 있는 사실은 베르나르가 이러한 실험 정신을 병리학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생리학이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생명 현상과 그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병리학에서도 실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베르나르의 지론이었다. 여기에서 생체 실험이라는 상황이 대두된다. 베르나르는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생체 실험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인간이나 동물이 어떻게 살아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죽어가는 상태를 보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생명의 메커니즘은 죽음의 메커니즘에 의해 비로소 이해되고 증명되기 때문이다 (Bernard, 1966: 150).

2세기경의 갈레노스(Galenos)는 동물을 통한 생체 실험의 기원이 되는 의사이다. 갈레노스가 인간의 질병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해부학적 구조의 이상(異常)’을 처음으로 역설하게 된 것도 생체 실험을 통해서였다. 당시에 로마 주교와 교회의정서가 인간의 시체 해부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생체 실험은 의학의 실제적 모델들을 구축하기에 한층 더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19세기의 마장디에서 시작되어 베르나르로 이어지는 동물의 생체실험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인체의 기능을 알기 위해 필

요불가결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대다수의 의사들은 생체 실험의 필요성에 반대했다. 의학계는 생체 실험 대신 시체 해부를 통해 인체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베르나르는 소위 ‘소수 의학(la médecine mineure)’의 입장에 서있었다(Bernard, 2011: 39-47). 베르나르가 개인사적으로 가정불화가 잦았던 이유들 중의 하나도 아내와 딸이 생체 실험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⁹⁾ 게다가 동물에 대한 생체 실험은 인체와 가장 근접한 구조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고등 포유동물이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는 19세기 유럽 전체의 전반적인 여론이 되었다. 베르나르는 생체 실험을 소수자 입장으로 감행하면서 많은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베르나르가 생체실험을 지속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체 해부학은 의학의 기초로 여전히 필요한 것이지만 인체의 생리적 기능과 과정은 해부학만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근대적 인식이 그의 지론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즉, 경험과 관찰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는 경우에 한해 의미가 있다.

생체 실험에 따른 베르나르적 인식은 졸라가 자연주의 작가의 특성을 언급하는 부분과 이어진다. 졸라는 베르나르가 언급한 “경험의학자médecin empirique”와 “실험의학자médecin expérimentateur”의 차이점을 인용하면서 작가는 바로 그 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테면 의학자는 어떤 생리적 현상이나 약용 식물이 해열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해열 작용을 하는지를 알 때, 그 지식은 더 이상 고립된 경험이 아니라 또 다른 작용까지 해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작가”는 기존의 반대를 무릅쓰고 생체실험까지 감행하는 실험의학자의 정신과 조우해야 한다고 졸라는 말한다. 졸라는 “실험의학자의 꿈은 실험적 방법을 인간에 대한 자연적, 사회적 연구에 응용하려는 소설가의 꿈이기도 하다”(Zola, 2006: 65)고 언명한다. 졸

9) 베르나르의 부인인 프랑스와즈 마르탱(Françoise Martin)은 1883년에 프랑스 최초로 동물생체해부 반대 협회를 설립한다. Jean Pierre Marguénaud, *L'expérimentation animale: Entre droit et liberté* (Paris: Quae, 2011), p. 113.

라에게 있어서 인문적 지식인 혹은 작가란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정념의 메커니즘”을 실험적으로 파악하려는 자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개개인의 정념은 신비롭거나 고귀하다기 보다는 인류 전체의 틀 안에서 관찰하고 실험해보는 실증적 대상이 된다. 베르나르의 실험 의학을 지지한 소수의 편에 섰던 졸라의 입장은 자연주의 문학이 당시에 대세였던 낭만주의 문학에 비교하면 ‘소수 문학(la littérature mineure)’이었던 시대적 맥락과도 통한다. 자연주의는 개인과 사회를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사회에 만연한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의학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베르나르는 생물체가 환원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 유기체의 현상과 기능을 무생물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베르나르가 개진한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의 이중적 잣대에서 비롯한다. 이를테면 인간은 더위와 추위를 내적 환경의 항상성을 통해 인지하고 적응하면서 그 생명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생물은 어느 정도까지는 마치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항상성은 모호하게 묘사되는 생명력 때문이 아니라 내적 환경의 복잡한 물리화학적 조건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베르나르의 지론이었다. 그가 ‘병리학 강의’에서 고등 생명체를 “감탄할만한 기계une machine admirable”라고 간주한 것도 내적 환경의 메커니즘을 역설하기 위해서였다(Bernard, 1966: 104).¹⁰⁾

그런데 베르나르는 『실험의학연구서설』에서 생명체의 내적 환경에 따른 복잡성이 결국 ‘실험적 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들을 야기한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외적 환경 속에 존재하는 화학적 요소들 혹은 무생물체들에게 일정 법칙이 있듯이, 생물체의 내적 환경이 포괄하고 있는 생리학적 요소들의 복잡성에도 일정 법칙이 항상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베르나르는 무생물에 적용 가능한 실험은 생물에 적용될 수 없

10)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의 항상성 원리는 반세기가 지난 후 미국의 생리학자 월터 케논(Walter Canon)에 의해 세포, 조직, 유전자에까지 적용되는 전반적인 개념으로 확장된다.

다고 주장한 생리학자 조르주 퀴비에(Georges Cuvier)를 비판하게 된다. 요컨대 생명체의 경우는 내적 환경을 고려해야하며 거기에도 절대적 결정론(le déterminisme absolu)이 작동된다는 베르나르의 관점이 퀴비에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베르나르는 퀴비에가 주도해서 만든 몽티용 상을 1845년부터 1853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수상함으로써 생계와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재정적 수혜를 입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퀴비에에는 결국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대상이 되었다.

1856년 베르나르는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열린 ‘실험 병리학 강의(cours de pathologie expérimentale)’에서 고등 동물의 내부 환경에 기인한 복잡계(la complexité)의 특성들을 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강의 자료에 따르면, 그는 생리학을 “생물 현상의 물질적 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과학”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그는 내부 환경의 다양한 조건들이 물리화학적 관계들을 이루면서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생리학 연구가 무의미해질 정도라고 토로한다. 그는 여기서 생리학자들이 생명과 생물에 대해 자주 쓰는 표현인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성질들 propriétés les plus merveilleus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베르나르는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관성과 다르다는 점, 즉 관성은 수동적이고 고정된 힘이지만 항상성은 역동적이며 능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항상성의 특성은 ‘생기(la force vitale)’의 개념에서도 원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베르나르 또한 생기의 불가사의한 힘을 나름대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생기론이 병리학적 측면에서 결코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다. 즉 생기라는 불가사의한 현상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그것은 실제 현장의 실험자에게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베르나르는 1856년 12월 강의에서 내부 환경의 물질적 조건들을 연구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어렵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험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험 정신은 19세기 유럽 문화의 근대성을 기초하는 힘이 된다.

진실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항상 실험가 앞에서 도망쳐 버리는 지식이야말로, 그의 유일한 고뇌이자, 또한 그의 유일한 행복이기도 할 것이다(Bernard, 1966: 307).

3. 베르나르의 『실험의학연구서설』과 자연주의

줄라는 1880년 출간한 『실험 소설』의 도입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학을 마치 소설 같은 하나의 예술로 여기고 있는 시대에 자신이 살고 있었다고 피력한다. 그는 자신이 비록 소설가이지만 의학은 결코 소설 같은 예술이 아니라 과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바로 그 맥락에서 클로드 베르나르의 연구와 “생기론에 맞선 투쟁”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본다(Zola, 2006: 59). 의학에 있어서 증명된 현상만을 인정하고자 했던 베르나르의 연구방식은 사실주의 문학을 넘어서 그 이상의 과학적 객관성을 추구했던 줄라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때문에 줄라는 자연주의 문학과 예술의 선언서라고 할 수 있는 『실험 소설』에서 문단의 선배이자 사실주의의 거장이었던 플로베르(Flaubert)나 발작(Balzac)이 아닌 의사, 베르나르를 언급한다.

클로드 베르나르는 의학을 과학의 길로 진입시키기 위해 일평생 연구하고 투쟁했다. 『실험의학연구서설』을 통해 마침내 우리는 경험주의에서 벗어나 진실에 다가서는 과학의 탄생을 목격하게 된다. 베르나르는 무생물 연구, 화학, 물리학에 적용된 실험적 방법이 또한 생물 연구, 생리학, 의학에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는 만일 이 방법이 육체적 삶을 해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감성적이고 지성적인 삶을 해명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Zola, 2006: 59-60).

보르베크와 코니(Bornecque et Cogny)에 따르면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와 거의 같은 시기(1850년 전후)에 근대 유럽의 문화계를 풍미했고 내용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Bornecque et Cogny,

1958: 44). 그런데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플로베르 또한 “위대한 예술은 과학적이며 비개성적인 것”이라고 발언하였지만, 이러한 과학으로의 지향은 졸라와 같이 정립된 이론이 아니라 다소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베르나르는 실험 의학이 개인적인 관점을 배제한 “비개성적인 학설 (théories impersonnelles)”(Bernard, 1966: 303)로 이어져야 함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였다. 그와 같은 점에서 베르나르의 실험의학은 19세기에 태동한 사실주의 및 자연주의 문학과 드넓게 조우한다. 졸라가 사실주의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연주의 문학의 기원으로 삼은 것 중 하나가 생명 유기체의 경우에도 절대적 결정론(le déterminisme absolu)이 작용한다는 베르나르의 실험 의학이다. 졸라가 자신의 문학 이론을 집약한 저작을 ‘실험 소설(le roman expérimental)’이라고 명명한 것도 베르나르의 실험 의학을 그 기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베르나르는 자연 법칙의 출현을 결정하는 원인을 ‘결정인자’라고 명명한다. 즉 모든 출현은 그에 앞선 원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사물 혹은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왜 그것이 생겨났는가’ 대신 ‘어떻게’라고 질문하고 대답하려고 할 때 인과론에 근거한 과학적 방법론이 세워진다고 베르나르는 역설한다. 존재에 대해서 ‘왜’라고 묻는 질문은 결코 파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영역으로 과학자 혹은 의사를 끌고 가기 때문이다. 졸라는 문학(소설) 또한 ‘왜’라는 질문 대신 먼저 ‘어떻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소설 전개와 인물 설정의 방법론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주의의 특징을 현실의 객관적 묘사라고 본다면 ‘결정론’에 대한 졸라의 믿음은 마침내 자신의 문학 이론에 사실주의와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 요컨대 졸라는 “관찰만의 문학”에서 베르나르의 실험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소설세계, 바로 “사실들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세계를 구상한다.

베르나르가 현대 의학의 존립근거로서 내세웠던 결정론을 문학에 적용하고자 했던 졸라의 기도(企圖)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다. 가령 하우스저(Hauser)는 19세기 문학사에 있어서 졸라를 결정론에 입각한 과학적 원칙을

처음으로 문학이론과 창작에 제대로 적용한 작가로 평가하고 있다.¹¹⁾ 그리고 베르나르-졸라로 이어지는 ‘실험 소설’¹²⁾에 투영된 과학적 원칙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주의 작가군(群)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Hauser, 1958: 86-88). 졸라의 자연주의 이론은 결국 인문학의 범주에 속해 있는 문학과 자연과학에 속해 있는 의학을 융합(Convergence)하고자 했던 본격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클로드 베르나르 같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육체를 일정한 법칙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오류의 위험 없이 언젠가는 사유와 정념의 법칙이 정립될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동일한 하나의 결정론이 길가의 돌맹이와 마찬가지로 분명 인간의 두뇌를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Zola, 2006: 70).

하지만 이 부분에서 졸라가 문학이론으로 받아들인 ‘결정론’이 당대의 낭만적 통속 소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었던 ‘숙명론’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측면에서 문학 연구자인 베커(Becker)가 자신의 문학사에서 비판한 것, 즉 졸라의 자연주의는 “달아날 길도 없는 그물에 사로잡혀 추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비판주의적이며 유물론적인 결정론”(Becker, 1963: 36)이라는 지적은 시사적이다. 그런데 베르나르는 이미 『실험의학연구서설』에서 결정론(Déterminisme)을 숙명론(Fatalisme)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어떤 현상에 근접적인 혹은 결정적인 원인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결정 조건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우리는 자연 현상의 법칙에(외부적) 작용을 시도할 수는 없지만, 그 결정 조건에

11) 그런데 졸라가 그러한 문학이론을 실제 작품 속에 얼마만큼 적용시켰는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연구되는 주요 쟁점이다.

12) 졸라의 다음 구절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화학에서 생리학으로, 생리학에서 인류학과 사회학으로 가는 한결같은 경로에서 문제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실험소설은 이 경로의 종착점에 위치한다.” Emile Zola, *Le roman expérimental* (Paris: Garnier-Flammarion, 2006), p. 60.

(외부적) 작용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결정론은 그 어떤 작용의 가능성도 배제한 숙명론과 다르다. 숙명론이 결정 조건과는 무관한 현상의 필연적 발현을 가정하는 반면, 결정론은 그 발현이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조건을 전제한다 (Bernard, 1966: 303-304).

줄라는 『실험 소설』을 출간했던 시기를 전후로 그가 주창한 자연주의가 숙명론적 구상일 뿐이라는 비난을 당시의 문단(文壇)으로부터 빈번하게 받았다.¹³⁾ 인간의 운명은 유전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리가 자연주의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줄라는 그러한 비난에 맞서기 위해서 베르나르가 피력한 결정론과 숙명론의 차이점을 그대로 원용하고 또한 소설에 적용하고자 한다. 요컨대 유전과 환경이 “자연 현상의 법칙”이라면, 그에 따른 원인과 결과를 바꿀 수는 없지만 환경을 바꾸면서 그 결정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숙명을 바꾸기 위해 그 조건을 극복하는 능동적 존재임을 줄라는 앞에서 언급한 베르나르의 ‘실험자의 조건’을 바탕으로 역설한다.

줄라는 1868년에 발표한 소설 『테레즈 라캥』의 서문에서 스토리의 각 장(章)들이 “무엇보다 기묘한 생리학적 경우에 대한 연구”에 해당한다고 언급한다(Zola, 2001: 25). 베르나르의 『실험의학연구서설』이 이미 1865년에 출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리학에 대한 줄라의 이와 같은 표현은 베르나르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즉 그것은 줄라가 자연주의 문학의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작품 속에서도 베르나르의 근대적 실험 의학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테레즈 라캥』의 두 주인공에

13) 당시 줄라는 문단의 비난에 맞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자연주의 소설가들 숙명론자로 여기면서 압살하려는 사람들의 강력한 비난에 맞닥뜨린다. 그들은 도대체 몇 번이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가 인간이란 유전과 환경의 영향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적 기계라고 선언한 순간부터, 우리가 조악한 숙명론에 빠진 채 인간을 한낱 운명의 지팡이 아래 걸어가는 가족의 무리로 만들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했는가!” Emile Zola, *Le roman expérimental* (Paris: Garnier-Flammarion, 2006), p.69.

대한 졸라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좀 더 시사적이다: “나는 해부학자가 시체에 행하는 것과 같은 분석적인 작업을 살아있는 두 육체에 행한 것뿐이다”(Zola, 2001: 25). 그는 이러한 과학적 시도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문예 비평가 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회고한다. 그리고 졸라는 서문에서 비록 베르나르를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지만 의학자가 시체 해부대신 동물의 생체 실험을 하면서 감내해야 했던 비난 또한 완곡하게 내비친다(Zola, 2001: 23-24). 게다가 졸라가 언급한 “분석적인 작업”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운명이 결국 유전과 환경이라는 이중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결정론과 맞물려있다.¹⁴⁾ 하지만 이러한 결정론이 좀 더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이 ‘일방적 작용’이 아니라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은 졸라가 인간의 주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에 대한 사회의,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개인의 상호 작용이야말로 우리의 크나큰 연구대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험소설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즉 인간에 대한 현상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 인간이 만들어내고 매일처럼 바꾸어 나가고 또 그 속에서 인간 자신이 끊임없이 변모해가는 사회 환경과의 관련 하에서 살아있는 인간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다(Zola, 2006: 72-73).

졸라가 제시한 “살아있는 인간”이란 무엇일까. 바로 환경의 작용을 받는 피동체이면서도 환경을 또한 바꾸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동적 힘을 지닌 인간일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베르나르에서 졸라로 이어지는 결정론에서 한 걸음 더나가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변증법적 속성을 새롭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베커가 주장했던 대로 졸라의 자연주의에서 “비관주의적

14) “『테레즈 라퀸』에서 나는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기질을 연구하기를 원했다. 이 책 전체는 바로 그것을 담고 있다. 나는 자유 의지를 박탈당하고 육체의 필연에 의해 자신의 행위를 이끌어가는, 신경과 피에 극단적으로 지배받는 인물들을 선택했다.” Emile Zola, *Thérèse Raquin*, Gallimard (Paris: Folio, 2001), p. 10.

이며 유물론적인 결정론”을 발견하기 보다는 “변증법적 결정론”을 고려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베르나르의 결정론에 포괄되어 있는 ‘선형적 관념(idée préconçue)’은 좀 더 분석해볼 가치가 있다. 요컨대 선형적 관념의 의미를 간과한다는 것은 베르나르의 결정론에 담겨 있는 과정을 이분법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르나르의 선형적 관념은 바로 예술가의 ‘상상력(imagination)’ 혹은 ‘영감(inspiration)’의 방식과 연관된다.

베르나르에 따르면 실험과학은 관찰과학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가령 천문학이 관찰과학인 까닭은 연구자가 별이라는 대상 밖에 머물면서 있는 그대로의 천문현상만을 기록하기 때문이다.¹⁵⁾ 하지만 화학은 실험과학에 속한다. 연구자는 대상에 조작을 가하고 그 인과적 결과를 살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 과학은 단순한 관찰이 아닌 “유발된 관찰(l’observation provoquée)”이다. 유발된 관찰의 목적은 실험자가 실험을 통해 제시한 가설의 증명에 있다. 그런데 실험자의 가설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베르나르에 따르면 그것은 선형적 관념에 해당하는 상상력, 창조적 직관성, 혹은 영감을 통해 만들어다. 그렇다면 필연적 결정론을 증명하는 실험 과학의 출발점은 현상의 객관적 인식이 아니라 실험자의 주체적 선택과 해석으로부터 비롯된다. 베르나르는 “탁류 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심정, 즉 일종의 직관이나 한줄기 빛 같은 감정”(Bernard, 1966: 50)이 가설을 세우는데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바로 비(非)객관적 상상력이 필연적 결정론에 개입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베르나르는 실험과정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그러한 선형적 관념, 즉 실험자의 주관성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인다. 그렇지 않으면 가설은 결코 사실에 이를 수가 없기

15) “우리들은 천문 현상을 예지 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변경시킬 수 없다.” Claude Bernard, *L'introduction à l'étude de la médecine expérimentale* (Paris: Delagrave, 1865); Réimpression (Paris: Garnier-Flammarion, 1966), 278. 베르나르는 이 부분에서 천문학과 같은 방식으로 의학을 이해하는 당시의 의학자들을 비판한다. 즉 경험주의적 의학은 관찰을 통해 질병에 대한 예지(叡智)적 능력을 배가할 수는 있겠지만, 질병의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러한 베르나르의 실험적 관념은 당시에 새로운 문학을 표방했던 자연주의 작가들에게 크게 두 개의 논리로 전수된다. 그 중 하나는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은 외부 세계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Zola, 2006: 84-85). 또 다른 하나는 자연주의 작가가 외부 세계의 진실을 추구한다고 해서 결코 “신문 기자나 어떤 현상의 사진사”와 같을 수 없다는 논리다(Zola, 1979: 25). 베르나르의 선입관념과 같이 문학에서 최초의 이야기는 작가의 주체적 상상력 혹은 영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베르나르의 실험적 관념 속에 내장되어 있는 창조적 상상력은 자연주의라는 장르를 넘어서 문학과 예술의 본질적 속성으로 이어진다.

4. 베르나르에 대한 생태학적 비판과 현재적 의미

근대 의학사에서 베르나르는 의학에 실험 생리학을 접목시킨 과학적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가 과학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 원칙(le principe absolu)과 상대적 원칙(le principe relatif)을 구별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 원칙은 자연의 현상에 근거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 원칙은 인간이 만든 이론(théorie)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의 도그마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그것이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 이론이 우리를 억압하지 않도록, 언제라도 그것을 “포기하고(abandonner), 개정하고(modifier), 변경할(changer)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베르나르의 지론이다.

졸라는 베르나르의 과학적 정신의 적용뿐만 아니라『실험의학연구서설』에서 강조했던 “고정된 이론”의 위험성을 실제적인 소설 창작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졸라의 작품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자연주의 이론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어떤 것들, 즉 자연의 신비로운 치유적 능력에 대한 신뢰, 자연을 향한 신화적 상상력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Mitterand, 2000: 167-

171). “제 2제정(帝政)하의 한 가족의 자연적, 사회적 역사(Histoire naturelle et sociale d’une famille sous le Second Empire)”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졸라의 <루공-마카르 소설 총서(Les Rougon-Macquart)>는 마치 거대한 프레스코 벽화처럼 19세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을 그려내고 있다. 가령 졸라는 총서 중의 하나인 『테레즈 라캥』에서 베르나르가 역설한 ‘절대적 원칙’을 인물 묘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인물들의 운명이 유전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소설 속의 타락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파리라는 대도시에서 신비한 구원의 체험을 하는 곳은 뜻밖에 도시 속에 숨겨져 있는 자연이다. 자연을 통한 이러한 신비한 구원의 체험은 20권에 달하는 총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믿음 속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안일한 존재라는 비판은 베르나르의 실험의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근본적 윤리성이다. 이러한 윤리성은 인간의 학설이 결코 자연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 비롯한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중심주의적 진술, 즉 인간에 의한 자연지배 사상과 대비되는 베르나르의 사유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요컨대, 이론에 적용되도록 자연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적용되도록 이론은 수정되어야 한다(En un mot, il faut modifier la théorie pour l’adapter à la nature, et non la nature pour l’adapter à la théorie)”(Bernard, 1966: 102).¹⁶⁾

16) 베르나르의 이와 같은 사유는 메를로-퐁티의 ‘인식의 현상학’과 통한다. 이를테면 메를로-퐁티는 인식의 현상학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세계는 지식보다 우선하는 것이며, 지식이란 항상 이 세계에 대한 언급이다. 모든 과학적 도식화는 이 세계와 관련된 추상적인 기호언어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시골에서 숲이나 들판, 강에서 미리 배우는 것과 같다.”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1945), p. 15. 또 다른 현상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베르나르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 또한 ‘고정된 사유(les idées fixes)’를 해체하고자 했던 베르나르의 ‘회의(懷疑)하는 정신’ 때문이다. 베르나르가 『실험의학연구서설』의 머리말에서 자신의 의학적 경로가 “점차 철학적 체계의 영역을 버리고, 더욱 더 분석적 형식으로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지만, 베르나르와 현상철학과의 관계사는 베르나르의 사상, 즉 실험정신을 밝혀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사료된다.

생태학의 근본 원리는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무생물까지 필연의 관계망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필연의 관계망은 ‘상생의 원리(le principe de l’harmonie)’를 통해서 지속된다. 가령 나무가 인간을 위한 존재라면, 인간도 나무를 위한 존재라는 것이 성립되어야 한다. 인간이 오랫동안 만물의 영장임을 자처하면서 자연을 개발한 것도 일종의 관계맺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행위가 ‘자연 자체의 유기적 자율성’을 위한 심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차원에 머문다면, 그것은 결국 ‘일방적 관계맺음’이다(이찬규, 2008: 153). 더 나아가 인간이 개발 이익이라는 무한 욕망 속에서 자연의 착취를 당연시 하다면, 그것은 일방적 관계맺음을 넘어 ‘모욕(侮辱)의 관계’로 이른다. 그리고 자연의 착취 혹은 그 파괴가 당연시 될 때 그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하게 재현된다.¹⁷⁾ 우리는 또한 이를 ‘모욕 사회’¹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베르나르가 혈액의 생리적 특성을 통해 ‘상호적 관계 맺음’을 환기시키는 부분은 생태학적 측면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또한 그러한 혈액의 상호성을 “유기적 혹은 사회적 연대(連帶)”로 간주하는 것은 베르나르가 생리적 현상 속에서 상생의 원리를 폭넓게 역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육기관과 신경기관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기관의 활동을 지탱한다. 그러나 혈액은 거꾸로 혈액을 만들어내는 기관에 영양을 공급한다. 이것이 바로 - 필요한 생명 원소 활동의 교란 혹은 정지가 신체의 균형을 파괴하거나 신체의 작용을 교란·정지시킬 때까지 - 영원한 운동을 가능케 하는 유기적 혹은 사회적 연대다

17)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있는 논리, 즉 자연과 연관된 것들을 열등시키는 사고구조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여성은 남성보다, 흑인은 백인보다 자연에 가깝다는 이유로 문명의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착취와 억압을 받아왔는가? 자연적인 것보다 문명적인 것이 더 우월하다는 서열논리는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구체화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찬규, 「가스통 바슐라르와 펠릭스 가타리: 생태학적 상생의 문화를 위하여」, 『한국프랑스학회』62, 2008, 151쪽.

18) ‘모욕 사회’라는 표현은 장은주의 『생존에서 존엄으로』(서울: 나남, 2007)에서 차용했다.

(Bernard, 1966: 138).

자연 속에서 혹은 인간과 사회 속에서 상생의 원리를 인식하는 것은 카프라가 언급하고 있듯이 심층생태학(Deep ecology)적 전망이다(Capra, 1997: 23). 심층생태학의 개념에는 순환적 사고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베르나르가 역설한 실험자의 회의(懷疑)하는 정신이 고정된 사고(les idées fixes)의 해체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점 또한 심층생태학적 측면에서 재발견해 볼 수 있다. 베르나르에 따르면 고정된 사유는 상대를 모욕하는 상황을 만든다. 때문에 그는 과학적 실험자를 위해 이렇게 조언한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지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의견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의 진실을 내장하고 있다. 세상에는 자신의 학설을 확인하는 데만 급급해서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들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학설을 기반으로 세워진 ‘고정된 사유’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기 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은가. 이와 같은 소질(素質)은 가장 나쁜 것이다. 발명을 위해서도 필요치 않다(Bernard, 1966: 100).

베르나르는 자신의 저작 속에서 ‘발명(invention)’과 ‘발견(découverte)’의 사전적 의미 차이를 간과하고 그것들을 자주 혼돈해서 사용한다. ‘발명’과 ‘발견’에는 의미의 차이가 분명 있지만, ‘새로운 것’이란 의미적 공통분모도 있다. 그리고 베르나르에 따르면 새로운 것이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함으로써 드러나는 어떤 양태(樣態)이다. 베르나르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실험자가 발명자로 간주될 수 없음을 요약한다: “생물학에 있어서도 무생물을 다루는 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험자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한다. 다만 자연의 법칙에 따를 뿐이다”(Bernard, 1966: 151).

베르나르가 실험 과학을 통해 발견한 것 중의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이롭든 이롭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유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베르나르는 이를 ‘필연적 결정론(le déterminisme nécessaire)’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간주한다. 과학주의에서 비롯된 그의 ‘필연적 결정론’은 자연을 기계에 비유해 물리적·기계적 운동의 결과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Fauvet, 1957: 96-97). 이러한 일반적 평가는 그의 필연적 결정론에 대해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선행 연구가 지금까지 부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베르나르의 필연적 결정론은 인간 또한 다른 모든 유기체들과 더불어 자연 현상에 속한 하나의 개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태주의적 입장을 포괄한다. 생태주의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위계적 믿음에 대한 반격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베르나르가 기계론(mécanisme)에 대비되는 생기론(vitalisme)을 거부했다는 대다수의 주장들 또한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만은 없다(Gillespie, 1973: 24-34; Debru, 2001: 25-26). 그는 생기론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교조화 된 생기론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가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성급한 믿음에서 비롯된 실험 의학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비판을 했던 것도 생태학적 맥락일 것이다.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들은 결코 자연 현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연이 결정한 형태만 간신히 만날 수 있을 뿐이다”(Bernard, 1966: 304).

베르나르가 생태주의와 대립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의 스승인 마장디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동물 생체 실험이다. 유기체의 생명 현상은 시체를 통해서도 결국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물을 통한 실험이 필요했던 것이다. 마장디는 당시 동물실험 반대론자들과 맞서서 생체 실험을 변론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요컨대 인류사에서 필요불가결한 전쟁처럼 동물 생체실험은 필요한 것이며, 또한 생체 실험보다는 사냥이 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Magendie, 2012: 209-210).¹⁹⁾ 마장디

19) 베르나르는 생체 실험 분야에서 마장디의 위치를 이렇게 올려놓는다: “드 그라프, 하베이, 아세리, 펙케, 알레 등은 생체해부학자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름들이다. 현재에 이

의 주장은 인류의 생존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대명제 속에서는 타당하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라면 인간의 생존마저도 배제할 수 있다는 캘리콧(John Callicot)이나 인구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하딘(Garette Hardin)등에서 일견할 수 있는 에코-파시즘(Eco-fascism)을 염두에 둔다면 마장디의 인류애적 주장은 더욱 타당하다. 에코 파시즘은 결국 인류사에 있어서 유대인 대학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마장디에서 베르나르로 이어지는 생체 실험은 인간혐오주의나 전체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목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근대적 휴머니즘을 표방한다. 하지만 생체실험은 ‘공생(symbiosis)’이라는 생태주의의 기본 개념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1879년 식물병리학자인 드 바리(De Bary)가 처음으로 사용한 ‘공생’은 “서로 다른 생물이 함께 생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생명 진화의 원동력을 ‘적자생존’ 혹은 ‘생존 경쟁’ 중심으로 파악해온 종래의 이해 방식을 넘어서 상생(相生)의 원리로 이어진다. 상생이란 종(種)이 다른 생물들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경쟁이나 훼손의 남용이 아니라 의존하며 사는 방식을 뜻한다.²⁰⁾ 때문에 넓게 보자면 동물에 대한 생체 실험 속에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베르나르는 어느 정도 생태학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베르나르는 『실험의학연구서설』에서 인류사를 위해 필요 불가결했던 생체 실험의 역사를 요약한다. 베르나르에 따르면 문헌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최초의 인간 생체 실험은 고대 페르시아 시대이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사형수들을 의사에게 인도했고 독약과 해독제에 대한 실험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의 의사였던 셀서스(Celsus)는 “만일 생체실험이라는 형벌이 미래

르러 생체 해부는 특히 마장디의 영향을 받아 생리학과 의학의 영역에서 상시적 연구방법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Claude Bernard, *L'introduction à l'étude de la médecine expérimentale* (Paris: Delagrave, 1865); Réimpression (Paris: Garnier-Flammarion, 1966), p. 129.

20) 전통 진화론에서는 서로 다른 종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상생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 Luc Ferry, *Le nouvel ordre écologique*, (Paris: Grasset, 1992), p. 37.

의 모든 시대를 통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결과가 된다면, 이러한 생체실험은 중죄인에게 시행되어도 참혹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베르나르는 셸서스의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면서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참혹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언명한다. 다만 그는 사형수가 교수형이 집행되어 사망한 직후에는 그 시신을 빌려 생체 조직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겠냐고 반문한다(Bernard, 1966: 130). 이러한 점에서 베르나르가 독일의 나치 시대에 행해졌던 잔혹한 생체 실험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일부 주장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Marguénaud, 2011: 115).

그런데 베르나르의 동물 생체실험에 대한 견해는 마장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을 가축으로 기르거나 식료품으로 사용하면서도 동물 생체 실험만은 범죄로 여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베르나르의 견해는 인간과 달리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 쾌락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카르트(René Descartes)나 이성과 도덕을 갖는 인간의 이익이 그렇지 못한 동물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 동의한 칸트(Immanuel Kant)의 윤리적 정당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동물 실험에 대한 베르나르의 사유가 오래전부터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서구의 전통 사상과 맥락을 달리하는 지점이다. 요컨대 베르나르는 동물 또한 인간과 같이 고통을 고스란히 느낀다는 사실을 그들처럼 부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는 자들은 참혹한 행위를 한다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베르나르는 주장한다. 그러한 ‘타자의 고통’을 인정하고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동물 실험을 하는 점에 있어서 베르나르는 데카르트에서 칸트로 이어지는 형이상학적 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즉 베르나르가 생체 실험을 계속했던 이유는 그것이 생명을 진료하는 의사의 ‘상황(situation)’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생리학자를 향하여 ‘참혹’하다고 던지는 비난을 여기서 변명하지는 않겠다.(...) 그는 과학자다.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적 사상에 전력하고 있는 인간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고, 샘처럼 흘러나오는 피도 바라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외과의사 또한 아무리 슬픈 울부짖음, 아무리 참혹한 신음 소리를 들어도 결코 손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Bernard, 1966: 132).

김옥주 등이 『생명과학연구자들을 위한 인간 대상 연구 윤리』의 첫 장에서 베르나르를 무엇보다 먼저 언급한 것은 그러한 ‘상황’적 차원의 맥락과 연관 있어 보인다. 생체 실험에 대해서 실험자나 의사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 속에서 먼저 그 윤리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19세기 유럽은 동물뿐만 아니라 특히 하층민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생체 실험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시기였다(김옥주 외, 2007: 3)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 출간된 베르나르의 『실험의학연구서설』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원칙은 김옥주 등의 지적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베르나르는 이렇게 언급한다: “외과 및 내과의 윤리적 원칙은 실험결과가 과학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더라도, 즉 만인의 건강을 위해 유익하다 하더라도, 대상 인간에게 해로움을 주는 실험은 결코 하지 않는데 있다”(Bernard, 1966: 152). 줄라는 생체 실험에 대한 이러한 베르나르의 윤리성을 원용하면서 자연주의 작가를 “실험적 모랄리스트(moraliste expérimentateur)”라고 명명한다.

에밀 줄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베르나르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오늘날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은 그의 실험의학이 자연의 도구화를 일삼았던 근대 과학 문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베르나르의 실험 의학은 인간이 자연을 주재한다는 인간중심적 논리를 도리어 해체하려는 시도를 포괄한다. 베르나르는 치료에 있어서도 인간이 만든 의약의 작용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연의 힘을 믿는 것이 실험의학자의 태도라고 언급한다(Bernard, 1966: 259). 의사가 자신의 치료덕분에 병자를 고쳤다고 생각하는 경우,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도 완쾌되는 자연의 힘을 의사가 숙고해 보았는지 베르나르는 되묻고 있다. 그가 의사를 ‘자연의 정복자’라고 명명했다고 하지만(Prochiantz, 2001: 13), 결국 인간은 자연의 힘을 파악할 수 없고

겨우 그 힘에 접촉만 할 수 있는 매우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베르나르는 인식하였다(Bernard, 1966: 269). 때문에 그는 과학자들이 세워왔던 모든 체계들(Systèmes)까지 부정하고자 했던 과학자이자 의사였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종류의 체계들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체계는 자연 속에 없고, 다만 사람들의 정신 속에 있기 때문이다(Bernard, 1966: 271).

5. 결론

베르나르는 근대 의학사에서 의학이 개인적 권위를 넘어서 사실(le fait)의 권위를 추구하는 과학임을 재천명했다. 그의 실험의학은 데카르트(Decartes)와 콩트(Comte)에서 마장디(Magendie)로 이어지는 객관적 사유를 바탕으로 증명된 사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구체적 시도였다. 추측과 경험이 아니라 관찰과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만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에 대한 믿음은 당시 의학계의 주류였던 생기론뿐만 아니라 관찰된 것이 단순하게 기록으로 마무리되는 초기 생리학과도 변별되는 근대 의학의 기반이 되었다. 생명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과대평가하지도 말 것,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지닌 경계와 한계들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베르나르의 과학정신이 포괄하고 있는 지향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생명의 본질까지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과학정신이기도 하다. 더욱이 의학은 베르나르가 언급한 것처럼 생명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생명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려는 실험적 노력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적 노력은 언제나 회의(懷疑)하는 정신을 통해 갱신된다. 즉 “과학의 모든 이론들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오류(誤謬)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근대성이다. 베르나르의 실험 정신은 의학뿐만 아니라 19세기 유럽의 근대문화를

관류하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의 바탕이 된다. 그 중에서도 에밀 졸라는 문학의 근대성이 과학에서 비롯된다는 입장을 토대로 베르나르의 사유를 자연주의의 결정적인 모델로 받아들인다. 졸라의 『실험 소설』은 실험 의학과 문학적 실험의 동질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저작으로 베르나르의 사유에 담겨 있는 결정론과 선형적 관념 등을 당대의 문화계를 통해 재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자연주의는 문학이 결국 과학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였다는 비판적 견해 또한 있다. 하지만 졸라의 베르나르에 대한 수용은 인문학의 범주에 속해 있는 문학과 자연과학에 속해 있는 의학의 융합(Convergence)적 시도를 역사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구체적 단서가 된다. 이는 획일적 학문 분류 방식을 넘어 의학을 문화적으로 조명해 보려는 본 연구의 주요맥락들과 연결된다.

베르나르는 『실험의학연구서설』에서 예술이나 문학은 과학과 서로 융합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지적은 흥미롭다. 이는 본 연구가 개진했던 의학과 문학의 소통 및 관계사적 입장과는 다른 발언이다: “예술과 문학에 관해서 말하자면, 개성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예술과 문학은 정신의 자발적 창조이며, 우리의 정신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의 인식과는 다르다”(Bernard, 1966: 152). 아마도 베르나르는 당대의 예술과 문학이 과학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낭만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근대성을 표방하게 될 줄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실험의학연구서설』이 그러한 새로운 근대성의 주요 모델이 될 줄은 더욱 예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르나르의 ‘결정론’이 낭만적 소설에서 흔히 통용되었던 ‘숙명론’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 숙명론이 인간이 겪는 모든 일들을 어떤 행동으로도 미리 막을 수 없는 팔자나 운명으로 치부하는 것이라면,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으나 그 원인의 조건을 변경하면 결과도 따라서 바뀐다는 능동적 주체가 베르나르의 결정론에 온전하게 담겨있다. 따라서 졸라가 베르나르의 결정론을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전제할 때, 자연주의 문학을 언급하면서 흔히 사용되어 왔던 “비관

적인”, “불행한”, “어두운” 등과 같은 인상주의적 용어들은 수정되어야 한다. 줄라 또한 『실험 소설』속에서 자연주의 소설가는 더 이상 숙명론자가 아니라 진정한 실험적 모럴리스트(moralistes expérimentateurs)라고 밝히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Zola, 2006: 78). 따라서 베르나르의 결정론에는 인간이 인과론의 작용 속에 있는 피동적 존재이지만, 원인의 조건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동적 존재라는 인식 또한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변증법적 결정론”이라고 명명한다.

베르나르의 과학 정신과 ‘의학적 기계론(iatro-mécanisme)’, 그리고 생체 실험은 일반적으로 생태학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 실험 의학 또한 인간이 자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인간중심주의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르나르의 사유 속에서 생태학적 측면 또한 다각적으로 재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만든 학설이 결코 자연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베르나르의 발언을 하나의 근거로 삼는다. 게다가 베르나르의 ‘필연적 결정론(le déterminisme nécessaire)’에도 모든 만물이 인간의 유용성을 떠나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생태적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론에 적용되도록 자연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적용되도록 이론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베르나르 자신이 언급했듯이 “영혼과 사유의 자유를 선언하는 과학적 방법(la méthode scientifique qui proclame la liberté de l'esprit et la pensée)”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방법 속에는 생태주의적 태도가 깃들여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다. 사유의 자유는 “겸손의 실천(acte d'humilité)”을 전제로 한다는 베르나르의 태도가 그러하다. 겸손의 실천은 무엇인가? 바로 자연의 권위에 인간의 권위가 종속될 때 그 실천은 비로소 시작된다고 베르나르는 언명한다(Bernard, 1966: 77). 요컨대 실험의학이 자연의 도구화를 일삼았던 근대 과학 문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생태학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피상적인 지적일 것이다. 환자를 도구화하는 생체 실험을 통해 과학의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그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그의 윤리적 원칙 또한 분명 생태주의적 태도다.

베르나르는 ‘학설(théorie)’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즉 가설이 최대다수의 사실에 의해 입증된 것을 학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베르나르는 ‘가장 훌륭한 학설(La meilleure théorie)’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이렇게 대답한다. 새롭게 출현하는 사실과 비판 밑에서 사라지는 학설이 가장 훌륭한 학설이라고 한다. 만약에 어떤 학설을 완벽한 것이라 주장한다면, 그것은 교의(doctrine)가 된다고 베르나르는 부언한다(Bernard, 1966: 305). 19세기 유럽 문화 곳곳에 미치는 근대성의 기원이 되었던 베르나르의 사유는 ‘가장 훌륭한 학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근대성은 그렇게 현재진행형으로 작동한다.

색인어 : 프랑스 문학, 클로드 베르나르, 근대성, 에밀 졸라, 실험 의학, 결정론, 실험 소설, 인간중심주의, 자연주의, 생태학, 융합

투고일 2013. 3. 6

심사일 2013. 3. 11

게재확정일 2013. 4. 17

참고문헌 REFERENCES

〈자료〉

Bernard, Claude, *De la physiologie générale*(Paris: Hachette, 1872); Réimpression (Bruxelles: Culture et Civilisation, 1965).

Bernard, Claude, *L'introduction à l'étude de la médecine expérimentale* (Paris: Delagrave, 1865); Réimpression(Paris: Garnier-Flammarion, 1966).

Bernard, Claude, *Leçons sur les phénomènes de la vie communs aux animaux et aux végétaux*(Paris: Libraire Bailliere, 1878); Réimpression(Paris: Nabu Press, 2011).

Magendie, François, *Précis élémentaire de physiologie* (Paris: Ulan Press, 2012).

Zola, Emile, *Le roman expérimental* (Paris: Garnier-Flammarion, 2006).

Zola, Emile, *Mes Haines* (Genève: Slatkine, 1979).

Zola, Emile, *Thérèse Raquin*, Gallimard(Paris: Folio, 2001).

〈연구논저〉

강신익 · 신동원 · 여인석 · 황상익, 『의학 오디세이』(서울: 역사비평사, 2007).

김옥주, 「문학과 의학 : 현대 임상학에서의 의미」, 『가정의학회지』22-11, 2001.

김옥주 외, 『생명과학연구자들을 위한 인간 대상 연구 윤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남경희, 『생태주의 인문학 서설』, 『생태주의와 기호학』(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1).

유기환, 『에밀 졸라』(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이찬규, 「가스통 바슐라르와 펠릭스 가타리: 생태학적 상생의 문화를 위하여」, 『한국프랑스학회』62, 2008.

장은주, 『생존에서 존엄으로』(서울: 나남, 2007).

정명환, 『졸라와 자연주의』(서울: 민음사, 1982).

한희진, 「폴-조제프 바르테즈(1734-1806)의 생기론」, 『의사학』19-1, 2010.

Basilio, Kelly, *Le mécanique et le vivant: La métonymie chez Zola* (Genève: Droz, 1993).

Becker, George, *Documents of Modern Literary Re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Benjamin, Andrew, "Experimentation as a Defence of Literature: Zola's Roman Expérimental," *Australian Journal of French Studies* 45(Monash University, 2009).

Bornecque, J.H. et Cogy P., *Réalisme et naturalisme*(Paris: Hachette, 1958).

Capra, Fritjof, *The Web of Life*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7).

Clarke, Robert, *Claude Bernard* (Paris: Seghers, 1961).

Dachez, Roger, *Histoire de la médecine* (Paris: Tallandrier, 2012).

Debray-Ritzen, Pierre, *Claude Bernard : ou un nouvel état de l'humaine raison* (Paris: Albin Michel, 1992).

Debru, Claude, "L'art du physiologiste et l'interprétation des faits", *La nécessité de Claude Bernard* (Paris: L'harmattan, 2001).

Delsol, Michel & Jeanine, Flatin, "Le concept de réductionnisme chez les spécialistes de la théorie synthétique," *La nécessité de Claude Bernard* (Paris: L'harmattan, 2001).

- Dorst, Jean, *La nature dé-naturée* (Paris: Delanchaux et Niestlé, 1965).
- Fauvet, Jean, *Histoire de la médecine* (Paris: PUF, 1957).
- Favre, Robert, *La littérature française: Histoire & perspectives* (Lyon: PUL, 1990).
- Ferroul, Yves, *Médecin et médecine: Manuel de l'introduction à l'étude de l'histoire de la médecine* (Paris: Honoré Champion, 2005).
- Ferry, Luc, *Le nouvel ordre écologique* (Paris: Grasset, 1992).
- Gillespie, Charles C., *Dictionary of Scientific Biography* (New York: Scribner's, 1973).
- Grmek, Mirko D., *Raisonnement expérimental et recherches toxicologiques chez Claude Bernard* (Genève: Droz, 1973).
- Hauser, Arnold, *The Social History of Art* (New York: Vintage Books, 1958).
- Holmes, Frederic L., *Claude Bernard and Animal Chemistry: The Emergence of a Scientis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Lambrichs, Louise L., "Présentation", *La nécessité de Claude Bernard* (Paris: L'harmattan, 2001).
- Lesch, John E., *Science and Medicine in France: The Emergence of Experimental Physiology, 1790-185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Marguénéaud, Jean Pierre, *L'expérimentation animale: Entre droit et liberté* (Paris: Quae, 2011).
- Mazliak, Pierre, *François Magendie: Bouillant créateur de la physiologie expérimental au XIXe siècle* (Paris: Hermann, 2012).
-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1945).
- Mitterand, Henri, *Le naturalisme* (Paris: Nathan, 2000).
- Prochiantz, Alain, "Claude Bernard: la force du vivant", *La nécessité de Claude Bernard* (Paris: L'harmattan, 2001).
- Py, Gilbert, *L'indispensable de la culture générale: Le XVIIIe siècle* (Paris: Studyrama, 2002).
- Schiller, Joseph, *Claude Bernard et les problèmes scientifiques de son temps* (Paris: Cedre, 1967).
- Sylvie, Thorel-Cailleteau, *Réalisme et naturalisme* (Paris: Hachette, 1998).

- Abstract -

Claude Bernard's Experimental Medicine: One of the Origins of Modernity and Naturalism of French Literature in the 19th Century

LEE Chan-Kyu* · LEE Na-mi**

* Institute for Humanitie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Lee's Psychoanalysis Clinic, Seoul, KOREA

Authors studied how Claude Bernard, the first founder of experimental medicin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establishment of modernism and influenced European modern culture. Authors first studied his views on modernity, comparing with Descartes and Magendie, and on the similarity between “Experimental medicine” and the European literature in the 19th century.

Bernard was not exclusively against vitalism, but the dogmatic misuse of vitalism. His objective thinking could be a useful model for the authors, who considered science to be an origin of modernity in literature of naturalism. Especially, Emile Zola was strongly influenced by Bernard's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Experimental medicine” and published “Experimental novel,” a manifesto of naturalism.

* RF Professor, Institute for Humanities, Sungkyunkwan University
Address: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110-745, KOREA
Tel : 82-2-760-1279 / E-mail : balcon15@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Lee Nami/ Lee's Psychoanalysis Clinic
Address: Seocho 4dong 1699-3 Shinhankook Building 702, Seoul, 137-883, KOREA
Tel 82-2-597-6100 / E-mail : nami6107@naver.com

Received: Mar. 6, 2013; Reviewed: Mar. 11, 2013; Accepted: Apr. 17, 2013

Although Bernard's experimental methodology and determinism deeply influenced modern European cul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Experimental medicine and modernism have not been fully investigated yet. His experimental medicine also needs to be discussed from the ecological viewpoints. His anthropo-centrism was unique since he emphasized any human theory could not surpass the principle of nature. Conventional anthropo-centrism claims that human beings are superior enough to own and govern the nature. And Bernard's the necessary determinism contains the ecological principle that all life forms and inanimate objects are organically related and intertwined to each other, irrespectively of their usefulness for the human beings. Although there were some ethical debates related to his medical experiments on living bodies of animal, his strict principle to perform experiments only after animal or human body died was worth considering as an effort to sustain ecological viewpoints. He was also unique in terms of being realistic and candid about his situation which was limited by the 19th century's scientific and medical development.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convergence of literature and medical science in Experimental medicine and the importance of Bernard's ecological viewpoints, need to be further studied in the field of medical history.

Keywords: French literature, Claude Bernard, modernity, Emile Zola, experimental medicine, determinism, experimental novel, anthropocentrism, naturalism, ecology, convergence

